2025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묵상기도 — 다같이

신앙고백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310장 — 다같이

1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대표기도 — 담당자

성경봉독 — 시편 136:10~16 — 다같이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설 교 — 인도자

합심기도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 6:9~13)

사귐의 교회

대표기도 예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형통한 속에서도 한결같이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사랑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우리 가정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뿌리내리는 가정되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가정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올해도 베풀어주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원망과 불평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6편에서는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아픔도 돌아보면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눈앞의 어려움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출애굽기에는 그러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36편은 광야를 지난 후, 그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돌아본 결론은 놀랍게도 '감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목마름과 갈등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광야의 모든 사건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벗기시며 기쁨으로 띠 띠우시는 분이십니다. (시 30:11)
지금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도 언젠가 시편 136편처럼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2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감사의 근거는 바로 '영원하신 인자'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시편 136편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36:1)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귐의 교회